

## 황우석 사태는 얼마나 한국적인가? : 황우석 사태의 보편성과 특수성 읽기<sup>†</sup>

이영희\*

이 글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의도 뚜렷이 내리지 않고 그 용어를 쓰고 있으며, 아울러 황우석 사태를 대체로 한국적 후진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황우석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황우석 사태는 여성들의 난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사용 의혹에서 비롯되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들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일련의 과학적 부정행위 규명과정, 그 과정에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보여준 황우석에 대한 비이성적 지지 현상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는 황우석 사태가 세계적으로 볼 때 보편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논문조작에 초점을 두고 황우석 사태를 보면 황우석 사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으로는 과학자간 경쟁의 격화와 업적주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지속되었던 점에 초점을 두고 황우석 사태를 보면 황우석 사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상의 근원에는 대체로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한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황우석 사태, 보편성, 특수성, 황빠 현상, 논문조작, STS

<sup>†</sup> 본 연구는 2006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자우편: leeyoung@catholic.ac.kr

## 1. 문제제기

지난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걸쳐 한국 사회를 온통 들쭉서 놓았던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 사건은 근대 한국과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될만한 일이다.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이 밝혀지면서 온 사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반 대중들이 황우석 연구팀, 특히 황우석 전 교수의 명백한 논문조작 및 부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고 변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황우석 사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한편에서는 논문조작과 같은 과학적 부정행위를 가져오게 한 황우석 개인의 성향 및 한국 연구개발시스템의 문제들을 반성적으로 되짚어보는 시도들이 전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황우석 연구팀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떠받드는 대중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과학기술학'이라는 학문분야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주도해 왔다(강신익, 2006; 김종영, 2006a; 김환석, 2006a; 서이중, 2006; 홍성욱, 2006a; 김근배, 2007).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발견된다. 그것은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도대체 황우석 사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따라서 매우 혼란스럽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글들에서 황우석 사태라는 용어는 대부분 논문조작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황우석과 정치권의 유착관계나 대중들의 비이성적인 황우석 지지현상(소위 '황빠' 현상)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글들은 황우석 사태라는 용어를 엄밀한 정의나 일관성 없이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sup>1)</sup>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황우석 사태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정의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황우석 사태는 여성들의 난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사용 의혹에서 비롯되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들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일련의 과학적 부정행위 규명과정, 그 과정에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보여준 황우석에 대한 비이성적 지지 현상 모두를 의미한다. 즉 황우석 사태는 기본적으로 (i)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두 편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 (ii) 이러한 논문조작 사실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옹호하는 대중들의 비합리적인 집합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과연 황우석 사태는 얼마나 한국적인 현상인가?”이다. 그간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황우석 사태를 한국사회에 고유한 후진적인 연구관행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과연 것처럼 황우석 사태를 ‘한국적’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올바른가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을 미리 요약적으로 말하자면, 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가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한국적인 특수성이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 
- 1) 황우석 사태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를 전혀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황우석 사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몇몇 측면들만을 편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환석(2006b)은 “황우석 사태는 단순히 ‘과학사기’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적, 윤리적, 이데올로기적, 정치경제적 요소들의 독특한 복합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황우석 사태의 본질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의 역시 너무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용어 역시도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 글쓴이에 따라 황우석 사태라는 용어 대신에 황우석 사건이나 황우석 신드롬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 2. 황우석 사태의 전개과정

앞에서 정의한대로, 황우석 사태는 실험에 사용된 여성들의 난자들의 출처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되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들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일련의 과학적 부정행위 규명과, 그 과정에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보여준 황우석에 대한 비이성적 지지 현상 모두를 의미한다. 이제 이 황우석 사태의 전개과정을 되짚어 보자.<sup>2)</sup>

황우석 교수가 세간에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그는 임상 수의학자로 1990년대 초중반에 농림부 등의 지원을 받아 수정란 분할을 통한 동물복제연구를 시작하였고, 이어 수정란 핵이식을 통한 동물복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2월에 영국 연구팀에 의한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이 알려지면서 그는 체세포핵이식 복제연구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고,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1998년부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소복제에 나서게 된다. 그는 1999년 2월에 복제소 ‘영롱이’를 만들어내 세계에서 5번째로 체세포 동물복제에 성공하게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sup>3)</sup> 그 해 4월에는 복제 한우 ‘진이’ (“시대를 초월해 칭송받는 작품을 남긴 황진이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소가 되라”는 뜻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손수 붙여준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를 연이어 탄생시킨 황 교수는 당시 언론의 조명과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되면서 일약 ‘스타과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한 예로, 황 교수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하여 대통령 및 과학기술 관련 장관들 앞에

- 
- 2) 이하 황우석 사태 전개과정 내용 중 앞부분은 이영희(2006)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3) 그러나 영롱이가 체세포 복제소가 아닐지 모른다는 의혹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복제소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는 달리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발표된 적이 없었고, 관련 자료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 이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아직까지 영롱이가 진짜 체세포 복제소인가의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가짜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서 직접 복제소 탄생에 대해 보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처럼 소복제로 이름을 드높인 황 교수는 2002년에는 정통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3년간 43억원) '광우병내성 소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종간 장기복제를 위한 면역거부반응이 제거된 무균돼지 복제연구에도 착수함과 아울러 점차 줄기세포 분야로 연구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그가 스타과학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힌 것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였다. 2003년 초 새롭게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황 교수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2003년 8월에 황 교수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장관급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황 교수가 관여하고 있는 '바이오신약·장기' 분야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황 교수는 바로 그 바이오신약·장기 분과의 위원장 직을 맡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에 황 교수가 세계 최초로 광우병내성 복제소와 무균미니돼지를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기술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느꼈다. 동북아 시대, 2만 달러 시대의 가능성과 희망을 확실히 발견했다"고 까지 황우석 교수를 추켜세웠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듯이 황우석 연구팀은 2004년 2월에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NT-hES-1) 추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다는 이 발표를 접하고 정치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황우석 연구팀의 성과에 환호하였다. 국내의 일부 종교계 인사, 생명윤리학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등이 실험에 쓰인 난자의 비윤리적 추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곧 황우석에 대한 환호 속에 묻혀버렸다. 황우석 연구팀의 눈부신 성공 소식은 2005년에도 계속 이어졌다. 2005년 5월에 황우석 연구팀은 또 다시 <사이언스>에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추출에 관한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전세계에 명실상부하게 자신이 배아줄기세포 분야의 제1인자임을 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황우석 지원이 전개된다.

특히 박기영 순천대 교수는 2004년 1월에 노무현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황우석 교수 지원에 앞장섰다.<sup>4)</sup> 박 교수는 '황우석 연구지원 모니터팀'과 '황우석 지적재산권 관리팀'을 운영하고, 정부와 청와대 측의 핵심인사들을 중심으로 '황금박쥐'(황우석 교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보좌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황우석 기념우표 발행))라는 비공식 모임을 결성하고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 2005년 10월에 공포된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이 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황 교수가 2005년 5월에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한 뒤에 갑작스럽게 신설된 것으로, 매년 30억원씩 5년간 지원되는 '최고과학자' 제1호로 황 교수가 선정되었다.<sup>5)</sup> 한편 과학기술부는 2004년 황 교수에게 6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연구비를 265억원으로 확대 책정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부가 2004년에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 교수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 연구가 5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 창출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하면서 확대 책정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한다.<sup>6)</sup>

- 
- 4) 박기영 교수는 황우석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공저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공이 다른 박 교수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논문에 이름 넣어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박 교수를 자신에 대한 든든한 후원자로 만들고자 한 황우석 교수의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된 바 있다.
- 5) 이 사업은 미리 황 교수를 최고과학자로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들러리를 세우는 등의 '쇼'를 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사업이 황 교수에게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2005년도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박사 후 3년 이내의 젊은 우수 연구자 10명에게 지원하기로 한 국가특별연구원제도의 예산 10억원이 전용되었다는 것이다(한재각, 2006). 어쨌든 황 교수를 스타과학자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6) 그러나 <사이언스>는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대가면서 시장잠재력 평가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과학기술부가 황 교수 띄우기를 위해 황 교수 연구의 시장 잠재력을 가공하고 부풀리기 한 셈이다.

그러나 2005년 말경부터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 의혹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황우석 사태가 터지게 된다. 2005년 11월 12일에 2005년도 <사이언스> 제2저자였던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체럴드 새튼 교수가 갑작스럽게 난자채취의 비윤리성 등을 거론하면서 황우석 교수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을 계기로 황우석 사태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황우석은 연구에 사용된 난자는 환자의 동의 아래 기증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11월 21일에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20여 명의 난자제공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시인하고, 더 나아가 22일에 방송된 <PD수첩> 1탄 “황우석 신화의 난자매매 의혹”이 황우석 연구팀의 실험에 쓰인 난자들의 상당수가 매입되었으며 심지어 연구팀에 속한 여성연구원도 난자를 제공하도록 강압을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자 황우석도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백의종군의 뜻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대중들은 황우석 연구팀의 비윤리적 행태를 비난하는 대신 난자조달의 문제점을 파헤친<PD수첩>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황우석을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대중들의 이러한 행태는 급기야 <PD수첩> 광고의 전면중단 사태를 가져왔다. 대중들은 진실을 밝힌 <PD수첩>을 오히려 반민족적이고 매국적인 것으로 몰아부쳤다. 이러한 거센 항의 속에서 MBC 측은 12월 7일 <PD수첩>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조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사실 전반전에 불과했다. 이미 단순한 난자조달 문제가 아니라 논문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작성 당시 황우석 연구팀에 속했던 연구자로부터 입수했던 <PD수첩>은 2005년 6월부터 은밀하게 황우석 연구팀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조작 여부를 조사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한학수, 2006). <PD수첩>의 황우석 연구팀 논문조작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일반 대중은 물론 저명한 과학자들, 정치인,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이언스>가 검증해 실은 논문을 비전문가집단인 <PD수첩>이 검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황우석 연구팀을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그러

나 12월 5일 새벽에 젊은 과학자들의 웹페이지인 BRIC에 황우석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 사진이 중복된 사실을 밝히는 글이 올라온 것을 필두로 일부 소장파 과학자들이 황우석 논문의 조작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서울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자 서울대는 12월 15일에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우석의 유력한 협력자였던 노성일 이사장이 "줄기세포는 없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된다. 폐지되었던 <PD수첩>도 전격적으로 방송을 재개하고 "특집, PD수첩은 왜 계검증을 요구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논문이 조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해를 넘겨 2006년 1월 8일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5년 논문만이 아니라 2004년 논문도 조작되었으며, 줄기세포는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서울대 조사위원회, 2006). 그 직후 정부는 황우석에게 수여했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하였으며, <사이언스>는 황우석 연구팀의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의 진상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황우석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스스로를 집단화, 조직화하고 때로 폭력적인 행동도 불사하는 기이한 사태가 지속되었다. 흔히 '황빠'로도 불리는 황우석 지지자들은 수시로 서울 광화문 네거리 등지에서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급기야 황우석 지지자 한 사람은 "황 교수 줄기세포 연구 중단사태 진실 규명과 연구 재개, 음모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분신자살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또한 서울대 조사위원회를 이끌었던 노정혜 연구처장과 노성일 이사장 등을 폭행하고, 황우석 사태에 관한 학술토론회장에 난입하여 학술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아이러브황우석'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황지연)' '황우석 연구 재개 지원 국민연합(황지국)' 등 비롯한 황우석 지지자들의 사이트가 다수 개설되어 있는데, 이들 사이트들은 황우석을 지지하는 운동을 조직화하고, 동시에 황우석 비

판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공유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황우석 지지자들이 동원하는 정당화 논리는 주로 특허권과 같은 국익 수호론, 애국주의에 기반해 있다. 즉 작금의 이 모든 사태는 황우석이 확보한 특허권을 가로채려는 미국의 음모 때문에 벌어졌기 때문에 황우석 연구팀의 과학적 부정행위를 규명하는 것은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반민족적이고 매국적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반민족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를 옹정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애국적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애국주의적' 황우석지지 현상은 2006년 후반으로 오면서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일각에 남아 있다.

### 3. 황우석 사태의 보편적 성격

지금까지 우리는 황우석 사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황우석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이 사태를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시도도 많이 이루어졌다. 주로 국내 학자들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지만 일부 외국의 학자들도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황우석 사태를 분석한 많은 글들이 이 글들은 황우석 사태의 핵심을 논문조작 사건으로 본다. 황우석 사태를 한국적, 혹은 후진국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탈구조주의적 과학기술학 연구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헤르베르트 고트바이즈(Herbert Gottweis)는 그의 동료와 같이 쓴 글에서 황우석 스캔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뿌리박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불투명성과 객관성 결여가 황우석에 절대권력을 안겨줬고, 결국 이러한 투명한 감시체계의 부재가 그러한 엄청난 과학적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에 근거하여 이들은 “인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발전하는 과학국가들은 이제 황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정치·행정적으로 책임있고 투명한 구조의 과학시스템, 투명한 정책결정과정, 과학적 비판의 기회와 공간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인도, 한국 및 중국 등의 과학 ‘발전도상국들’에게 충고하고 있다(Gottweis & Triendle, 2006). 황우석 사태를 후진국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사회과학자들도 대체로 황우석 사태의 배경을 한국적인(=후진적인) 특수성에서 찾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홍성태(2006)는 황우석 사태를 ‘박정희 체제’의 역사적 산물로 파악한다. 홍성태에 따르면, ‘박정희 체제’란 박정희가 18년 동안의 개발독재를 통해 이룩한 사회체제를 의미하는데, 국가주의, 결과주의, 성장주의, 경제주의, 과학주의 등이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특히 맹목적 경제성장을 강요하는 박정희 체제의 뒷이 과학을 경제주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황우석 사태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환석(2006a)도 이와 비슷하게 본다. 그에 따르면 황우석 사태는 ‘박정희 패러다임’에 입각한 과학기술정책이 낳은 것이다. 과학기술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이고,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조국의 선진근대화에 기여하는 핵심적 역군이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과학자는 오로지 전문지식과 기술만 열심히 추구하면 될 뿐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나 영향은 몰라도 된다는 생각, 그 결과 “남보다 빨리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의 정당성을 종종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즉 과정 보다는 결과를 훨씬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바로 과학기술정책에서의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강양구·김병수·한재각(2006)도 박정희 패러다임에 기반한 ‘과학기술동맹’이 황우석 사태를 낳았다고 본다. 정치권, 정부, 언론, 재계, 의회계, 과학계의 권력층이 황우석과 여러 형태의 이해관계에 기반한과학기술동맹을 맺으면서 황우석 사태를 배태시키고 심화시켰다는 것이다.<sup>7)</sup> 이영희(2006) 역시 황우석 사태를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지난 40년

간 유지된, 성장지상주의와 권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레짐의 산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며 확립된 성장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할 때 오로지 경제성장에의 기여라는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함으로써 과학자들에게 성과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권위주의는 실험실 내에서는 권위와 위계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행태를 확산시키고 실험실 밖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황우석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는 국내 학자들도 대체로 황우석 사태는 박정희 체제, 박정희 패러다임, 혹은 성장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과학기술 정책레짐이라는 한국 고유의 역사적 맥락과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를 관통하고 있는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은 과학 활동을 규율할 윤리적 틀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특수주의적 이해라고 할만 하다. 이처럼 황우석 사태를 한국적 현상으로 특수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나름의 장점과 긍정적인 정책적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들은 황우석 사태의 발생원인을 아직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 있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들(성장지상주의, 성과주의, 경제주의, 과학주의, 애국주의 등)에서 찾음으로써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황우석 사태를 한국적인 현상으로 보는 논의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적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황우석 사태에 대한 특수주의적 인식이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처럼 황우석 사태를 한국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유효

7) 이와 유사하게 김종영(2006)도 '과학기술복합동맹'이라는 개념으로 황우석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바른가, 황우석 사태와 유사한 현상들이 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의 질문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황우석 사태를 (i)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두 편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 (ii) 이러한 논문조작 사실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옹호하는 대중들의 비합리적인 집합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황우석 사태를 구성하는 이 두 요소들 중에서 논문조작 사건 부분은 사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과 독일 등 과학 '선진국들'에서도 논문조작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특히 생물 의학 분야에서 과학적 부정행위들이 잇달아 일어나자 의회가 나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기와 위조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한 바 있었고, 독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와 암 연구 분야에서 몇 건의 과학적 부정행위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불러일으켰다. 1974년 미국 슬로언-케터링 연구소에 근무하던 번역학자 윌리엄 서머린에 의한 실험조작 사건, 1981년 하버드 의대의 심장병학자였던 존 다시에 의한 데이터조작 사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독일의 유전자치료와 암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두 명의 분자생물학자 프리드헬름 헤르만과 마리온 브라흐에 의해 저질러진 광범위한 논문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영국에서도 1995년에 런던의 세인트 조지 병원에 근무하던 선임 산부인과 의사였던 말콤 피어스가 그 전 해에 <영국산부인과학회지>에 실었던 두 편의 논문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sup>8)</sup>

가장 최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2002년에 밝혀진 미국 벨연구소

---

8) 이들 각각의 논문조작 관련 사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명진(200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양 과학사에서 논문조작 등 과학적 부정행위가 매우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하인리히 창칼(2006)과 브로드 & 웨이드(1989)는 수많은 사례들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에 근무하던 안 헨드릭 쉰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일 것이다. 1997년도에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안 헨드릭 쉰 박사는 이후 미국의 벨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불과 6년 동안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실은 17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무려 100편 이상의 논문을 저명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수많은 상을 받는 등 일약 가장 유망한 과학자 중의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젊은 학자 중의 한 명으로도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가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발표한 세 편의 논문에 쓰인 그래프들이 거의 똑같은 모양이란 사실이 코넬 대학의 한 물리학자의 눈에 띄면서 논문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그는 단순한 실수라고 변명했으나, 급기야 벨연구소는 그의 논문조작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마침내 2002년 9월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위원회는 쉰 박사가 발표한 논문들 중 16편의 논문에서 결과들이 과대포장되었거나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쉰 박사는 바로 벨연구소에서 해고되었고, 2004년 6월에는 모교인 콘스탄츠 대학이 그의 박사학위마저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9)</sup>

지금까지 살펴본 과학 분야에서의 논문조작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이 충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특별히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교적 광범위하게 논문조작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아울러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의 정도가 외국의 논문조작의 정도에 비해 특별히 더 심각하다고 볼 근거도 별로 없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황우석 사태의 핵심을 논문조작 사건이라고 정의한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황우

9) 안 헨드릭 쉰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기술은 창클(2006)과 이준석·김옥주(2006)를 참고한 것이다.

10) 아울러 논문조작 이외에도, 강운재(2006)와 김근배(2007)의 연구에 따르면 황우석 이 수시로 동원했던 애국주의적 과학담론이나 뛰어난 정치적 수완 역시 황우석만의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행태가 아니라 통상 순수과학자로 간주되는 파스퇴르 같은 과학자에게서도 흔히 발견된다고 한다.

석 사태는 생명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한국에 고유한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띄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된다.<sup>11)</sup> 여기서 보편성이란 어떤 행위가 한국이라는 공간적 장소에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처럼 근래 들어와 과학에서 논문조작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된 것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과학자들 사이에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업적주의의 압박이 증대하는 등 과학 활동의 구조적 배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성욱, 2006b).

#### 4. 황우석 사태의 특수적 성격

앞 절에서 우리는 황우석 사태를 논문조작 사건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게 되면 황우석 사태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만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황우석 사태에서 한국에 고유한 특수적 성격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황우석 사태를 논문조작 사건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논문조작 사실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때로는 폭력적으로 옹호하는 대중들의 비합리적인 집합적 행태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황우석 사태는 세계사적 보편성 보다는 한국적 특수성을 더 많이 띄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1) 이 점에서, 황우석의 논문조작 스캔들은 한국에서 생명윤리 담론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강력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Bogner & Menz(2006)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에 따르면, 황우석은 자신의 복제연구 활동에 반대하는 한국내의 생명윤리 담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생명복제를 통한 불치병 환자의 치료 가능성을 서둘러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논문조작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지난 2005년 11월에 <PD수첩>에 의해 “황우석 신화의 난자매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고발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된 대중들의 열광적인 황우석 지지현상은 황우석이 논문조작에 적극 개입하였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와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황우석의 논문조작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특허권과 관련된 정치 경제적인 이권싸움에서 황우석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황우석의 연구재개와 특허권 수호를 외치고 있다. 지금은 다소 수적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PD수첩>이 황우석 관련 방송을 처음 내보냈던 2005년 11월 22일부터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던 2006년 5월 12일 사이 약 6개월 동안은 열성적인 황우석 지지자들의 수가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반 대중들로부터 광범위하게 호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6개월 동안 이들이 보여준 황우석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여러 종류의 황우석지지 사이트들을 개설하고 여기서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유통시키고 황우석 비판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공유하며 황우석 지지를 위한 집합행동 전략을 논의하였다. 특히 그들이 황우석 비판자들에게 보인 태도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때로 폭력적이기조차 했다. 이들 황우석 지지자들은 <PD수첩>을 방영한 MBC 사옥 앞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검찰 청사 앞에서, 또는 서울의 마로니에 공원이거나 광화문 네거리에서 수시로 시위를 벌이고, 황우석에게 불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감금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서슴지 않던 황우석 지지자들이 특별하게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 중에는 평범한 주부, 사업가, 농부, 종교인도 있었고, 정치적 행동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들로 하여금 황우석 지지로 나서게 한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익’과 ‘애국주의’ 담론이다. 그들에게 황우석은 국익과 애국주의

를 대변하는 존재이므로, 누군가(황우석 지지자들에 의해 때로는 미국, 때로는 서울대 의대가 지목됨)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 고난을 겪고 있는 황우석을 지지하는 것은 마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던 독립군의 투쟁과 같은 의로운 행동이 된다. 이처럼 애국주의적 정서에 기반하여 확산되었던 황우석 지지현상은 민족주의 정서를 업고 월드컵 때마다 등장했던 붉은 악마의 성공적인 대중동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sup>12)</sup>

이미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이 거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열광적인 황우석 지지현상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와 지지자들의 내부구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론적인 차원에서 몇몇 학자들이 분석을 시도한 바는 있다. 최종덕(2006)은 사회심리학 이론에 기대어 황우석이라는 한 과학자 개인의 기만이 집단적인 기만으로 전염되어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황우석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집단 최면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홍성태(2006)는 황우석 지지현상을 '팬덤' 문화의 한 양상으로 본다. '팬덤'이란 '스타덤'에 대응하는 말로서 스타가 아니라 팬이 스타를 지배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한다. 즉 황우석 지지자들은 스타인 황우석을 단순히 추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며 적극적으로 황우석을 보호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강신익(2006)은 황우석 지지자들이 보인 맹목적 애국주의는 70년대에 뿌리를 내린 성과 위주의 가치관과 2000년대에 경험한 민족적 자신감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규찬(2006)은 '국익'을 강조하면서 애국적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코자 하는 황우석 지지자

---

12) 서이종(2006)에 따르면, 황우석이 이처럼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한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매우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달변과 언론 활용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 보다는 오히려 민주화라는 변수가 황우석 사태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황우석이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의 달변과 언론 활용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의 달변과 언론 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들의 대중행동의 기저에는 지도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자존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민족적 나르시시즘', 진리 때문에 신화가 해체될까 봐 두려워하는 집착증적 정신착란, 숭배하는 '영웅'의 헌신을 도덕률로 삼는 소부르조아의 마조히즘 등과 같은 대중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유사 파시즘적 상황이라고 본다. 이준석(2006)은 황우석 지지자들에 대한 신화학적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건을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 원형신화와 연결한 사람들이 열렬한 황우석 지지집단의 일부를 구성했으며, 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신화의 원형과 동일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황우석에 대한 지지 현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시론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던 현상을 통해 나타난 황우석 사태의 또 다른 측면은 앞 절에서 살펴본 논문조작 행태의 보편성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유명 과학자들에 의한 논문조작 사건은 종종 일어나지만 한국처럼 대중이 그러한 비행과학자를 집단적으로 옹호하는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독 한국에서만 논문조작을 감행한 과학자를, 그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현상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른바 '황빠'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향후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연구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 글은 '황빠'로 표현되는, 황우석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현상 자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지니고 있는 한국적 특수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의 문제는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간략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논문조작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에 대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가 수그러들지 않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한’의 정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한의 정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억울함이나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한의 정서가 황우석 사태에서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적 정서와 결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주류’ 황우석에 대한 연민, 또는 연대의식의 정서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한의 정서가 강력한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적 정서와 결합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한 많은’ 역사적인 경험들로 인해 국제관계에서 피해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그 반향으로 강경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적 호소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황우석이 바로 이것을 잘 활용한 것이다. 황우석은 수시로 대중들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언설들을 생산해 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생명공학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오는 길이다”(2004년 <사이언스>에 논문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 기자회견)거나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2005년 6월 관훈토론)는 말, 그리고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섬세한 손 덕분에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하였다고 하는 말 등이 대표적이다.<sup>13)</sup> 언론 역시 여기에 편승하여 이러한 정서를 확대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 강대국들로부터의 피해의식에 기반해 형성된 한의 정서에 사로잡혀 있던 대중들이 이러한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호소에 얼마나 열광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열광이 황우석이 자랑하던 <사이언스> 논문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한의 정서가 ‘비주류’ 황우석에 대한 연민, 또는 연대의식의 정서와 결합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대중들은 의대가 아니라 수의대 소속이자 국내박사 출신이고 비경기고 출신이었던 황

13) 황우석이 했던 이러한 말들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성주가 황우석 사태에 대해 쓴 책의 끝부분에 첨부된 황우석 발언록에 잘 나타나 있다. 이성주(2006) 참고.

우석을 서울의대를 중심으로 한 주류 세력이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당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술하게 떠들던 음모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sup>14)</sup> 많은 수의 대중들이 논문조작은 사실이 아니라 황우석을 제거하기 위한 비겁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음모론에 동조한 것이다. 이러한 동조의 배경에는 ‘비주류’ 황우석이 당하는 억울함, 즉 한을 자신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연민, 혹은 연대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많은 수의 대중들이 황우석의 논문조작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 것은 세상살이에 대해 대중들이 한의 정서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형성한 인식의 프레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주류’ 황우석에 대한 연민, 혹은 연대의식으로 표출된 대중들의 한의 정서는 앞에서 살펴본 민족주의 및 애국주의 정서와 결합된 한의 정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황빠’ 구성원 다수를 점하고 있던 평범한 일반인들의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을 풀어준 황우석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생명공학적 개가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위협하게 되는 논문조작이라는 혐의에 직면해서 다시 한번 이들의 한의 정서가 ‘비주류’ 황우석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표현되면서 황우석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대중들의 한의 정서를 황우석이라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과학자가 잘 이용했던 데서 황우석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14) 당시 음모론의 갈래는 매우 다양하였다. 프리메이슨, 미국, 유대인, 국제금융자본들이 개입해서 황우석의 줄기세포를 훔치려했다는 국제적 음모론도 있었고, 서울의대 음모론, 삼성 음모론 등과 같은 국내적 음모론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국내적 음모론이 좀 더 영향력을 지녔던 것 같다. 김종영(2006b) 참고.

15)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그 성격과 규모 면에서 황우석 사태와 비견할만한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례는 리센코 사건이라는 김환석(2006b)의 주장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리센코 사건은 과학자와 정치권력의 유착, ‘기자회견 과학’의 선호, 논문조작 등의 측면에서는 황우석 사태와 유사한 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황우석 사태의 핵심 중의 하나가 비행이 밝혀진 후에도 계속된 대중들의 자발적인 열광적 지지현상이라고 본다면 리센코 사건에서 그러한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우석 사태와 리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황우석 사태를 단순한 논문조작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러한 과학적 비행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을 향해 지속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 현상에 초점을 두고 본다면, 황우석 사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 고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황우석 사태에 그러한 한국적 특수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대체로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강하게 배태되어 있는 한의 정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 글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황우석 사태에 대한 정의도 뚜렷이 내리지 않고 그 용어를 쓰고 있으며, 아울러 황우석 사태를 대체로 한국적 후진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은 나름대로 수긍할만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황우석 사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황우석 사태는 여성들의 난자들에 대한 비윤리적 사용 의혹에서 비롯되어 논문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들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는 일련의 과학적 부정행위 규명과정, 그 과정에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보여준 황우석에 대한 비이성적 지지 현상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는 황우석 사태가 보편적 성격과 특수적 성격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으로 논문조작에 초점을 두고 황우석 사태를 보면 황우석 사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으로는 과학자간 경쟁의 격화와 업적주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

코 사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리센코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브로드 & 웨이드(1989), 창클(2006) 등을 참고할 것.

으로 논문조작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지속되었던 점에 초점을 두면 황우석 사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상의 근원에는 대체로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한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황우석 연구팀의 논문조작의 역사적 배경을 박정희 시대에 확립된 성장주의 및 성과주의 문화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자칫 논문조작 사건이 '선진국'에는 없는데 유독 박정희 시대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한국과 같은 '후진국'에서만 일어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황우석 사태를 박정희 시대와 연관시키는 것은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왜곡된 연구 관행과 문화를 반성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되지만, 논문조작을 한국적 특수성과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실천적으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황우석 사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측면인 황우석에 대한 대중들의 열광적인 지지 현상은 한국적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면 황우석에 대한 이러한 대중적 열광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쉽게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비록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황우석 지지자들이 논문조작에도 불구하고 황우석에게 보인 그러한 비이성적 열광 분위기를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한의 정서라는 개념으로 해석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 참고 문헌 □

- 강신익 (2006), 「황우석 사태를 통한 한국의 과학문화 진단」, 『역사비평』, 제74호, pp. 115-143.
- 강윤재 (2006), 「황우석과 파스퇴르 그리고 ANT」, 『STS가 본 황우석 사태』,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5-33.
- 강양구 · 김병수 · 한재각 (2006), 『침묵과 열광: 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 후마니타스.
- 김근배 (2007),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 역사비평사.
- 김명진 (2006), 「연구윤리의 쟁점과 현황」, 『연구진실성(research integrity), 그 쟁점과 대책』, 시민과학센터 토론회 자료집, pp. 1-24.
- 김종영 (2006a), 「복합사회현상으로서의 과학과 과학기술복합동맹으로서의 황우석」, 『역사비평』, 제74호, pp. 82-114.
- \_\_\_\_\_ (2006b). 「"황빠" 이해하기: 책임전가의 정치」, 『STS가 본 황우석 사태』,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55-173.
- 김환석 (2006a), 「황우석 사태의 원인과 사회적 의미」, 『경제와 사회』, 제71호, pp. 237-255.
- \_\_\_\_\_ (2006b), 「황우석 사태를 통해 STS 성찰하기」, 『STS가 본 황우석 사태』,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14.
-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 (2006),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 서이중 (2006), 「과학정치적 시각으로 본 황우석 사태」, 『STS가 본 황우석 사태』,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07-129.

- 윌리엄 브로드·니콜라스 웨이드, 박익수 번역 (1989),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겸지사.
- 이성주 (2006), 『황우석의 나라』, 바다출판사.
- 이영희 (2006), 「황우석 사태와 과학기술정책」, 김세균·최갑수·홍성태 편,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 이준석 (2006), 「황우석 지지자들의 심리에 대한 신화학적 분석」, 『STIS가 본 황우석 사태』, 2006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후기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131-154.
- 이준석·김옥주 (2006),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정책 연구: 미 연구진실성 관리국(ORI)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research integrity), 그 쟁점과 대책』, 시민과학센터 토론회 자료집, pp. 25-75.
- 전규찬 (2006), 「공통이익 보호, 민주언론 책임의 실패: 황우석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의 한계」, 김세균·최갑수·홍성태 편,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 최종덕 (2006), 「기획적 속임과 자발적 속임의 진화발생학적 해부」,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pp. 1-10.
- 하인리히 창클, 도복선 번역 (2006), 『과학의 사기꾼』, 시아출판사.
- 한재각 (2006), 「황우석 사태를 키워온 자 누구인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황우석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생명공학감시연대 주최 토론회 자료집, pp. 24-37.
- 한학수 (2006),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황우석 사태 취재 파일』, 사회평론.
- 홍성욱 (2006a), 「과학기술학은 '황우석 사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역사비평』, 제74호, pp. 55-81.
- \_\_\_\_\_ (2006b), 「연구진실성과 과학 부정행위: 쟁점과 과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계 토론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태 (2006), 「황우석 사태와 한국사회: 정언학 유착망과 박정희 체계의 덫」, 『황우석 사태로 보는 한국의 과학과 민주주의』, 민주사회 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pp. 40-67.

Bogner, A. and Menz, W. (2006), "Science Crime: The Korean Cloning Scandal and the Role of Ethics",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 33, No. 8, pp. 585-612.

Gottweiss, H. and Triendle, R. (2006), "Koreanische Träume: Die verwegenen Fälschungen des Stammzellforschers Hwang Woo-Suk sind auch eine Folge politischer Verantwortungslosigkeit", *Die Zeit*, 2006. 01. 05, Nr. 2. [박진희 역, "밝혀진 황우석의 조작은 정치적 무책임의 결과", <http://bbs.freechal.com/ComService/Activity/BBS/CsBBSContent.asp?GrpId=50972&ObjSeq=1&PageNo=13&DocId=132048566>].

## How much Korea-Specific Phenomenon is Hwang's Scandal?:

Reading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Hwang's Scandal

Lee, Young Hee

### ABSTRACT

What does Hwang's scandal exactly mean? Is it confined to data fabrication or beyond that? Can it be seen as very Korea-specific phenomenon? With regard to these questions, existing research papers have not provided satisfactory answers so far. Based upon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aims to provide elaborated definition of Hwang's scandal,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wang's scandal in terms of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The essence of Hwang's scandal starting from the unethical acquisition of eggs is composed of two parts: 1) scientific misbehavior including data fabrication, 2) unreasonable behavior of Hwang supporters even after knowing Hwang's data fabrication. The first part of Hwang's scandal, that is scientific misbehavior including data fabrication can be described as universal phenomenon because it happens very extensively across the world. In contrast, the second part of Hwang's scandal, that is unreasonable behavior of Hwang supporters can be described as very Korea-specific phenomenon because we can not find such

phenomenon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tentatively argues that Hwang supporters' continuing unreasonable behavior such as enthusiastic support of Hwang even after knowing Hwang's data fabrication might be attributed to *Han* emotion[feeling of victimizedness] that Koreans used to have had from the past.

Key Terms:

Hwang's scandal, data fabrication, scientific misbehavior, universality, specificity